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IN LENT

주후 2023년 3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25 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21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 번 시편 2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20:1-17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십자가의 갈”	찬양대
설 교 Sermon	“거짓 증거하지 말라”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84 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 53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늘 마음이 조급해 했고, 쉽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43: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개역개정, 출 20:16)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NIV Exodus 20: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6 (주일)	3/27 (월)	3/28 (화)	3/29 (수)	3/30 (목)	3/31 (금)	4/1 (토)
	출37	출38	출39	출40	레1	레2,3	레4
본문	요16	요17	요18	요19	요20	요21	시1,2
	잠13	잠14	잠15	잠16	잠17	잠18	잠19
	엡6	빌1	빌2	빌3	빌4	골1	골2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29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6) – “복음” (사52:7)
토요 새벽기도회 (4/1 오전6:30)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아” (시117:1-2)

지난 주일(3/19)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31)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17)

십계명의 여덟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1)자신이 직접 절도 행각을 벌여서 감옥에 간적이 없기에, 이 계명은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또한 2)“다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정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또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물질(소유)에는 반드시 세 가지 영역(1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역, 2이웃과 나누어야 할 영역, 3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이 있기에, 우리의 물질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2)둘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화된 행동 (Repent & Repay)”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만,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셋째,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물건 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시간도 다 도둑질 하는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물질관”과 “변화된 행동”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